

팀 켈리의 “탕부 하나님” 을 읽고...



책 팀 켈리 탕부 하나님
은 자신의 몫을 챙겨 아버
지를 떠난 작은 아들 뿐 아
니라 아버지 명을 한번도
어기지 않고 부지런히 살아
온 큰 아들 모두 하나님 잔
치에 초대되어야 할 잃어버
린 아들들 임을 분명하게
이야기한다. 둘 다 하나님
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진
정으로 맛보아 알지 못한

다.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맛보아 제대로 알고 있을까? 형의 모습처럼, 나의 열심
이, 나의 성과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. 그러나
이 책은 오히려 복음의 중심으로 돌아가길 일깨워주며,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
그럴 듯한 믿음이, 능력이 있었던 적이 있던 건가 물어온다. 즉, 하나님 앞에 우리 개
개인이 지극히 소자이며, 죄인임을 확인시켜 준다. 우리의 열심으로, 어떤 자격으로
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
닫게 해준다. 또한 하나님 나라 잔치는 먼 곳에서 형이상학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
니며, 바로 내 안에서 부터, 내 가정속에서,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
임도 일깨워준다. “잔치에 함께 들어가자”라고 물어오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“네, 나
의 아버지.”라고 답하며 그분의 손을 잡는 것이 그분의 은혜를 직접 맛보아 경험하는
첫걸음일 것이다. 그분의 은혜를 직접 경험할 때야 비로소 나 또한 다른 소자들을, 내
이웃들을 마찬가지로 섬기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.